



## 국민생활건강대상 종합의료대상 수상

### 한국 의료 글로벌화 및 의료공헌 활동 공로 인정 국민에게 국제 수준의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제공할 터



고려대학교병원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 국민생활건강대상 종합의료대상' 을 수상했다.

박승하 원장은 지난 9월 26일(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 국민생활건강대상' 에서 종합의료대상을 수상하며, 국민에게 가장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JCI 재인증 획득 성공 이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2012 국민생활건강대상' 은 스포츠한국이 주최하고, 대한보건협회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후원했으며, 의료 및 식품 관련 전문가의 엄중한 심사를 통해 수상기업을 선정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물론 농협중앙회, LH공사, 전남 고흥시 등 국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국제적인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실현함으로써 한국 의료의 글로벌화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국내외 의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종합의료대상' 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총 1,000여 병상 규모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첨단 연구와 최상의 의료를 실현하는 글로벌 리더병원이다.

국제의료평가인 JCI 인증과 임상연구 국제인증인 FERCAP을 획득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한국의 의료기술' 에 ▲부정맥 치료 ▲갑상선 로봇수술 ▲로봇을 이용한 대장암수술 ▲초기위암 위 내시경 수술 ▲귀성형 ▲임플란트 등 6개 분야가 선정됨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국가지정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선정, 국가품질경영상 의료부문 최초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이번에 2012 코리아 탑 브랜드 대상의 글로벌 브랜드 대상 부분을 받게 되며 국내 의학의 선두주자임은 물론 글로벌 리더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인정 받았다.

고려대학교병원은 국제진료센터를 개설한 이후 2011년에는 전년 대비 외래환자 200%, 입원환자 77%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2년에는 2011년보다 300% 이상 전체 환자수가 급증하는 쾌거를 이룩하며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보다 적절하고 신속한 외국인 환자의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기관과 대사관 등 외국인 관련기관, 외국 의료기관 및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또한, 전담 코디네이터, VIP병동 확충 등 외국인 환자 편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전세계의 재난 현장을 찾아 인술을 펼치는 의료봉사도 계속되고 있다. 2011년 개원 70주년을 기념해 동티모르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했으며, 특히 당시 수술이 시급했던 환자 3명을 한국에 초청해 무료로 수술해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2009년 아프리카 마사이 원주민, 2010년 아이티 재난지역과 마다가스카르의 의료봉사를 다녀온 바 있으며, 카자흐스탄에 본원 장기이식팀을 파견해 수도 아스타나에서 최초로 신장이식에 성공해 생명을 나누는 등 세계 곳곳에 코리아 인술을 알리기도 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0년계획으로 병원-의과대학-연구소가 연계된 국제적 매머드급 메디컬 콤플렉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이면 진료, 연구, 교육을 총 망라하는 12만평의 매머드급 복합의료시스템을 완료할 수 있으며, 고려대학교병원이 국내 의학을 선도하는 맹주이나 세계적인 병원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 이학발전기금기부

12.06.04	김승유	₩ 100,000,000	12.07.06	최종욱	₩ 5,000,000
12.06.04	이기훈	₩ 5,000,000	12.07.16	천의영	₩ 10,000,000
12.06.04	유 현	₩ 10,000,000	12.07.30	유세화	₩ 20,000,000
12.06.08	이승배	₩ 10,000,000	12.05.21	이명주	₩ 3,000,000
12.05.30	정다금	₩ 3,000,000	12.05.10	의과대학 40회 동기회	₩ 1,000,000
12.05.24	김현철	₩ 100,000	12.06.25	임병건	₩ 1,000,000
12.06.04	이명진	₩ 10,000,000	12.09.05	이규호	₩ 11,237,000
12.06.08	권순운	₩ 5,000,000	12.10.05	박순하	₩ 5,000,000
12.06.25	이상현,김은영	₩ 100,000,000	12.10.15	박흥찬,김나미	₩ 100,000,000

\* 기간 : 2012년 06월 04일~2012년 10월 15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팀, 카자흐 최초 생체 신·췌장 동시이식 성공 [스페셜리포트 1]

### 한국인 의사 최초로, 북강경 신·췌장 동시 적출도 이뤄내 카자흐 대통령,李大통령에게 "한국의료기술 놀랍다" 전해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팀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의료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박관태 교수팀은 1형 당뇨병과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여의사를 대


상으로 생체 신·췌장 동시 이식을 카자흐스탄 최초로 성공 시켰다. 이로써, 생체 신·췌장 동시 이식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한국, 이태리에 이어 카자흐스탄이 4번째가 됐다.

지난 9월 12일(금) 박관태 교수팀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제7병원에서 굴바누(28, 여)씨의 신장과 췌장을 친오빠(31세, 男)에게 공여받아 이식하는데 성공했다. 굴바누씨는 15세부터 앓아온 1형 당뇨병(소아 당뇨병)로 말기 신장병까지 얻어 평생동안 인슐린 투여와 혈액투석으로 여생을 보내야만 하는 처지여서, 사실상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하지만, 장기이식은 생명을 위협하는 말기 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지만 단 기간에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이식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전체에서도 수술이 제대로 장기이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굴바누 씨 역시 본인 직업이 의사였음에도 카자흐스탄에서는 장기이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이제까지 혈액투석으로 생

명을 연장했던 상황. 박관태 교수팀은 굴바누 친오빠의 장기를 이식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보니 유일한 치료방법은 생체이식이었고, 다행히 친 오빠의 장기가 혈액형과 조직적합성 결과 이식수술에 적합하다고 확인됐다. 특히 친 오빠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 북강경을 통해 장기를 적출했다. 북강경으로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적출해 이식하는 것은 한국인 의사로서 처음 시도되는 고난이도의 수술이었다. 췌장은 부분적출을 실시했다.

박관태 교수팀은 굴바누 씨의 수술을 위해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정철웅 교수를 비롯해 간호사 2명을 포함한 4명의 팀을 별도로 조직해 카자흐스탄으로 떠났다. 수술 당시 중앙아시아 최초로 실시되는 생체 신·췌장 동시이식에 카자흐스탄 언론의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의학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알마티에서 한국 의사들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의술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며 박관태 교수팀의 수술에 대해 직접 언급했을 정도로 이번 수술에 대한 카자흐스탄 현지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신·췌장 이식수술이 이루어진지 한 달이 경과한 현재, 굴바누 씨는 건강하게 퇴원했으며, 발병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투여한 인슐린과 혈액투석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국가 차원의 표창을 박관태 교수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박관태 교수팀은 이번 이식 수술 이전에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 국립의료응급센터에서 10여건의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현지 의사를 한국에 초청해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후 현지에 돌려보내는 일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이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기로 했다. 

## 유방내분비외과 김훈엽 교수, 로봇수술 세계최고학회에서 수상 [스페셜리포트 2]

### 新 무흉터 경구 갑상선 수술법에 대한 연구 성과 인정받아




유방내분비외과 김훈엽 교수팀(공동 연구자 배정원, 이해운, 유지영 교수)이 로봇수술을 비롯한 최소침습수술과 관련된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에서 '영예의 과학 발표(honorable scientific presentation)'에 선정되어 수상했다.

김훈엽 교수가 수상한 학회는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12 세계 최소침습 북강경-내시경-로봇수술학회 정기총회 및 박람회(SLS-MIRA-SRS Joint Annual Meeting & Endo Expo 2012)'로 외과 전 분야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외과계열의 각국 의사들이 참석하는 학회이다. 특히 로봇수술에 관해서는 그 동안의 여러 국제 학회가 통합하여 출발하게 된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김 교수는 그간 연구하여 독창적으로 새롭게 개발한 '무흉터 경구 갑상선 절제술(transoral periosteal approach thyroidectomy, TOPOT)'에 대해 발표했다. 무흉터 경구 갑상선 절제술이란 입 안으로 접근해 갑상선을 절제하여 피부에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새로운 획기적인 수술법으로, 미용적으로 완벽할 뿐 아니라 기존의 다른 여러 내시경 및 로봇 수술 접근법에 비해 불필요한 수술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통증이 덜해서 회복이 빠를 뿐 아니라, 정교한 수술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비슷한 경구 수술법을 시도했던 독일 및 미국의 세 연구 그룹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던 반면, 김 교수팀은 독창적인 새로운 경구 접근법을 개발하여 여러 해부용 사체와 실험 동물 등을 대상으로 이 수술법을 적용·연구했고, 수술 결과 및 안전과 미용적인 부분까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이번 학회에서 발표했으며, 내용의 참신성과 획기성 및 성공적인 실험결과를 많은 의사들로부터 인정받아 이와 같이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김훈엽 교수는 "무흉터 경구 갑상선 절제술은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내시경 로봇 수술 기구와,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도의의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며 "새로 개발한 수술법은 그간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임상에 적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흉터 없는 수술이라는 모든 환자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 다하면 땀땀하지요 \_박승하 고려대병원장 [ 의학신문 이달의 인물 개제 ]

### 생각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외유내강형' 정치권에 '선심성 정책 이제 그만' 호소

"주어진 환경, 현재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땀땀하게 살자는 생각을 줄곤 합니다. 그러다보면 언제라도 후회할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하 고려대학교병원장은 거창하게 정리된 인생철학보다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 원장은 "성형재건수술은 정답이 없고 많은 수술방법 중에서 선택해 최선을 다해야 환자에게 결과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환자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땀땀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시절부터 외과의사로서의 성공모델은 백세민 교수를 공경해왔으며, 외국 연수는 토론토 의대 아동병원에서 clinical fellow과정을 거치며 기형재건을 전공하고 있는 학자다. 레이저에도 관심이 있어 국내에 레이저박피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처음으로 시술 장면을 생중계했으며, '레이저성형'이라는 책을 기술하기도 했다.

고려대 의대 학과장과 부학장을 거쳐 의료원 교육수련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병원장이 되기 전에는 야간 경영대학원을 다니며 '남몰래' MBA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MBA과정에서 인적자원관리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으며, 심리학 서적을 탐독하면서 의료계가 아닌 여러 분야의 원우들과 접할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됐다고 회고했다. 홍승길 전 고려대 의무부총장은 '생각이 깊고 직관이 뛰어나며 주변인물을 끌어들이는 인간적인 면이 뛰어난 분'으로, 그리고 김린 현 의무부총장은 '다독으로 박식하며 논리적이고 판단력이 뛰어난 분'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의 집안은 고대 집안으로 선친은 법학과를 나와 외교관을 지냈으며, 두 자녀는 의학과 3학년과 1학년에 재학 중으로 3대가 고대 교우이며, 병원장실에는 국전 초대작가인 할머니의 작품을 걸고 있다.

온화한 인상이지만 생각하면 꼭 하고 마는 외유내강형인 박 원장은 "주변으로부터 기초실장 때보다 병원장이 된 후에 부드러워졌다는 평을 듣는다"며 "모든 부서의 협조가 필요해서 협조를 구하다보니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병원의 모든 계층과 소통의 장을 중요시하며 병원에 환자와 교직원들의 심터를 넓혀가는 등 세심한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고대병원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JCI의 재인증을 견인한 박 원장은 요즘 JCI 전도사로 변신했다. "처음에는 JCI 인증을 뭐하러 하느냐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교직원들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의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를 느끼면서 공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JCI는 한번 시작하면 평가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JCI 인증병원엔 '환자가 안전하고 의료의 질을 생각하는 병원'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올 1월 초 취임 후 눈코 뜰새 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도 암치료 메카가 될 첨단의학센터 건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첨단의학센터가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을 떠 3년안에 완공하면 국제적 매머드급 메디컬 콤플렉스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박 원장을 자신했다.

박 원장은 원래 운동을 좋아하여 학부시절 테니스부 주장을 했으며, 요즘은 산책과 헬스로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만 주말엔 등산이나 이곳저곳으로 훌쩍 떠나는 여행을 즐기기도 한다.

그도 병원경영자가 되니 의료정책을 생산하는 정부나 정치권의 움직임에 예민해진 걸까. 박승하 병원장은 "제한된 건보재정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정부는 적정 진료를 원하는 반면,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정부나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신문 2012년 10월 15일 개제, 글 | 이정운 기자

## '아름다운 화합', 2012 고려대의료원 한마음 체육대회

[ 스페셜리포트 3 ]

### 축구 및 장기자랑 우승! 이송반실 김희수 일반업무원 최우수 선수 선정




고려대학교병원이 지난 10월 13일 녹지캠퍼스 축구장에서 열린 '2012 고려대의료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내며, 활약을 펼쳤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1,5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 농구, 축구, 테니스 등의 구기 경기와 레크레이션, 장기자랑을 비롯한 단체 경기가 진행됐다.

특히 고대병원은 7개팀이 참여한 장기자랑에서 심혈관센

터팀이 스포츠댄스를 선보여 우승했고 더불어 축구경기에서 우승해 우승트로피를 거머쥐며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특히 영예의 최우수 선수로는 김희수(안암 이송반실) 일반업무원이 선정됐으며, 영상의학과 강영모 방사선사가 4명의 우수선수 중 한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축구경기에서 큰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우수선수에는 안우섭(의료원 경영전략팀)대리, 강영모(안

암 영상의학과)방사선사, 최재원(구로 수술실)일반업무원, 윤종일(안산 이송반실)일반업무원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의료원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교직원간 단합을 도모한 공로로 볼링동호회(안암 총무팀 주임조경산업기사 손인호), 배드민턴동호회(안암 시설팀 주임기능사 이재환, 안암 원무팀 대리 이철희), 낚시동호회(안암 관리팀 주임의공기사 정명철)가 각각 트로피를 받기도 했다. 

###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 서울시장표창 수상



고려대학교병원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에코마일리지(에너지절약)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서울시장표창과 1천만원의 부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2012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약 10%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며, 3억여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했다. 시설 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 난방기를

고효율 콘덴싱보일러(6, 3TON) 2기로 교체하고, 저탄소 친환경 교체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 4천2백만원을 받아 저녹스버너(10TON) 2기를 교체하여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했다.

또한, 외래 및 병동 전체 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꾸고 한국전력과 약정하여 피크시간대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에 참여하고, 저소음고효율 변압기 교체공사를 통한 효율개선으로 전력사용량을 대폭 절감하기도 했다.

세면기, 싱크대 등에 절수량 사용으로 지수변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하기도 했다. 더불어 기계실, 자동제어실, 전기실에서는 24시간 실시간 감시를 통한 최적의 실내 온도, 습도, 조도 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적정냉방온도유지, 불필요한 전동소등, 대기전력차단 멀티탭사용, 3층 이하 계단이용 등 에너지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다. 시설팀 정현철 설비부팀장은 "에너지 절약은 교직원 전체의 공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며 "더욱 노력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어린이 환자 만난 '테디베어'



고려대학교병원은 9월 28일 오전 10시에 소아병동(53병동)에서 어린이 환자 전원에게 곰인형 '테디베어'를 전달했다.

이날 테디베어 전달식은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화약품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교수(진료부원장)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환아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뇌수막염으로 입원한 김소영(여 5세, 가명)환아의 보호자는 "병동생활로 지친 우리아가 테디베어를 받아들이고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뜻밖의 선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행사는 동화약품의 사회공헌 활동 중의 하나인 '후시딘 사랑의 테디베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병원에 테디베어 50개를 기증해 진행됐다.

### '해설이 있는 신바람음악회' 개최



홍통클리닉(담당교수 임도선)은 (사)심혈관 건강증진연구원의 후원으로 10월 9일 오후 5시 고대의대 본관 2층 유광사홀에서 '이 마에스트리'를 초청해 '해설이 있는 신바람 음악회'를 개최했다.

심장병 환우와 가족, 고려대 안암병원 박승하 병원장, 홍통클리닉 임도선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등 약 400여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심혈관질환 환우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환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공연에서 이 마에스트리는 ▲Una furtiva lagrima(남몰래 흐르는 눈물) ▲Voglio dire lo stupendo(사랑의 묘약도 살수 있나요?) ▲La donna e mobil(여자의 마음은) 등을 열창했다. 이 마에스트리는 세계 각국의 무대에서 기량을 닦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0여명의 최정상 남성 성악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창단된 이후 클래식의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이 마에스트리 양재무 음악감독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클래식 곡들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청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몽골 IMC, 고대병원서 6개월간 임상연수 실시



'몽골 International Medical Center(이하, 몽골 IMC)'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총 24명이 10월 9일부터 고려대병원에서 임상연수를 시작했다.

내년 5월 개원을 앞두고 외과,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의사 9명과 중환자실, 수술실, 외래팀, JCI인증팀 관련 간호사 16명,

의료기사 3명 등을 고려대학교병원(안암)을 비롯한 고려대의료원에 순차적으로 파견해 6개월간 임상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 IMC는 몽골 최초의 '국제사립종합병원(International Private General Hospital)으로 2013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지상 4층·지하 1층, 92병상 규모로 건축되고 있으며, 향후 이 병원은 800여 병상까지 증설하고, 고급인력 배출을 위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도 설립한다는 장기계획을 마련했다. 고려대의료원은 몽골IMC 개원에 맞춰 부원장급 의사를 포함한 다수의 의료진과, 간호사 등을 현장에 상주시켜 실질적으로 해외병원에 진출하게 될 전망이다.

고려대의료원은 국내외에서 임상과 연구역량을 높여 평가 받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고려대학교병원의 수익창출과 국위선양을 도모 할 수 있게 됐다.

###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1004 DAY 행사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10월 4일(목) 3층 로비에서 '1004 DAY' 행사를 진행하였다.

매년 10월 4일을 천사데이로 기념하여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병원을 방문하신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비만도 무료검진 및 당뇨병에 관한 건강 상담을 통해 내원고객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는 고대병원을 사랑하고 이용해주시는 내원객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한편,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하는 병원임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취지에서 진행하였으며, 약 850여명의 환자 및 보호자가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건강 상담을 마친 한 보호자는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들렀다 마침 기회가 되어 무료검진도 받고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상담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부는 앞으로 매년 1004 DAY에 맞추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병을 치료하는 3차 예방뿐만 아니라 1, 2차 예방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고객 유치 및 지역사회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제8회 심장수술의 날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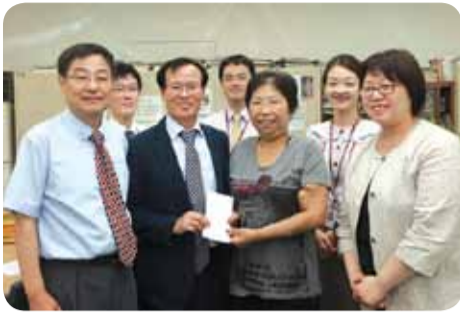
홍부외과(과장 선경)는 지난 10월 6일(토)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제8회 심장수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기형 진료부원장, 김형묵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홍부외과 의료진, 환우 및 보호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심장수술의 날'은, 고대병원 홍부외과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환우의 수술 후 약물 및 식이요법, 생활습관 등 건강관리를 위해 홍부외과에서 마련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장수술 후 식이요법(황희숙 영양사) ▲심장수술 후 항응고제 복용법(최명숙 약사)에 이어 홍부외과 교수진들의 Q&A와 외부초청강사의 치료 레크레이션 시간이 진행됐다. 심장수술의 날에 참석한 한 수술환자는 "진료실에서 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듣고 궁금증도 풀 수 있어서 좋았다"며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생명을 살려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원무팀, 커피 한잔에 백 원씩 모아 만성신부전 환자 치료비지원



원무팀(팀장 변동을)이 20여 년간 만성신부전으로 투병중인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며 풍성한 한가위를 시작했다. 원무팀은 지난 9월 25일(화) 조혜숙(46, 女)씨를 초청해 총 5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하고, 장기간 투병생활로 지친 환자를 격려했다.

조혜숙 씨는 만성신부전으로 매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만 살 수 있지만, 몸이 불편해 취직이 어렵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워 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연을 알게 된 원무팀은 지난 몇 년간 조혜숙 씨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해 전달해 왔다.

올해도 역시 직원들은 3월부터 커피 한잔을 마실 때마다 모금함에 백 원씩 넣어 성금을 마련했고, 외래 창구에 모금을 위한 폐지저금통을 비치해 내외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45만원을, 외래 저금통에서는 5만원을 모아 총 50만원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 2012 임상간호연구방법 워크샵 성료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10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임상간호연구방법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의료원 및 병원의 비전 실천전략의 일환으로 임상간호현장에서 발생하

는 간호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근거기반 간호실무(Evidence based nursing practice)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간호연구 진행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하여 연구방법을 교육하고 연구계획 및 연구설계에 대한 그룹토의를 통해 연구를 정련하였다.

간호부에서는 2012년 3월 임상간호연구를 진행할 부서를 선정하고, 5월 30일 각 부서에서 선정한 연구주제를 토대로 2012년에 진행할 임상간호연구논문 Proposal 발표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중간발표회를 거쳐 최종 임상간호연구논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발표회에 참가한 간호사는 "오늘 조언해주신 덕분에 우리 병동 연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연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영상의학과 김윤환 교수, 복지부 장관상 수상 영봉회 해외무료진료, 의료진교육, 장비 지원 등 활동인정



영상의학과 김윤환 교수가 국제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9월 25일(화)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12 제3회 행복나눔 행사'에서 '대한영상의학의료봉사회(이하 영봉회)'를 대표해 이같이 수상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영봉회에서 그간 실시했던 해외현 주민무료진료, 의료진 교육, 의료장비 지원 등의 활동을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영봉회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봉사활동을 위해 만든 단체로 현재 김윤환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7년 처음 세워진 이후 매년 몽골에 초음파 무료진료와 몽골 의사들과 한몽 영상의학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학술행사 및 환자진료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협진으로 현지 의사들의 시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초에도 몽골을 방문해 현지 주민 무료진료, 학술 심포지움 개최, 및 환자진료를 실시한 것은 물론, 수천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몽골 국립암센터에 기부하였고, 계속해서 우수한 몽골의사를 선발해 국내에서 장,단기 연수를 시키고 있다.


김윤환 교수는 "이제 해외봉사도 단순한 무료진료보다는, 의료진과 시설의 수준을 높여 스스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영봉회의 이러한 해외봉사의 다양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의대학생회, 환아의 재능으로 어려운 환아 돕는다




의과대학 학생회(회장 이성우)에서 고대병원 소아53병동에서 "사랑과 희망"을 주제로 그림대회를 열었다. 지난 9월 21일 의과대학 학생회는 환아들에게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전달하고, 환아들은 "사랑과 희망"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이날 환아들이 그린 그림은 티셔츠로 제작돼 10월 말 고대의대 축제인 '호의제' 기간에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판매된 수익금은 다시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이성우 고대의대 학생회장은 "소아병동 소아 환아 개개인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으로 제작된 티셔츠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구매자는 티셔츠를 통해 소아 환아 마음을 느끼고, 소아 환아들도 자신이 그린 그림에 보람을 느껴 소통하는 기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의대 학생회는 학생들의 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고대병원 소아 환아에게 성의를 전달했으며, 올해는 소아 환아의 스토리가 담긴 티셔츠를 소장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상호 소통하는 방식의 기부형태로 기부에 그치지 않고 서로에게 의미가 남는 행사를 기획했다. 


## 건강검진센터 김태윤 간호사, 서울간호학술상 장려상 수상



건강검진센터 김태윤 간호사가 서울간호학술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제5회 서울간호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상을 선정하여 간호계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김태윤 간호사는 '일 병원 간호사의 감성노동, 직무스트레스, 대처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위논문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학위논문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 하여 학술대회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개원기념 모범직원 병원장상 포상 실시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10일(수) 개원기념 모범직원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포상자는 재무팀 김종우 과장, 영상 의학과 김연호 주임방사선사, 시설팀 명경선 주임기능사 등 3명이며, 표창장과 금메달 2등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 신경과 박건우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 치매가족의 치유'에 앞장서



신경과 박건우 교수가 9월 21일(금) 세텍(SETEC)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5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족 치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졌다.

박건우 교수는 2009년 서울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개소 당시부터 센터장을 담당하며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치매 환자와 가족, 센터 직원이 함께하는 메모리 합창단을 구성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치유에까지 힘써왔다.

박건우 교수는 고려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로 치매 치료와 연구에 정진하고 있으며, 강북구 치매지원센터장, 대한치매학회 간행이사 등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노인건강연구소장, 고려대학교 의무교과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치매극복의 날'은 지난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가 치매 환자의 치료 문제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9월 21일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도 매년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복지부를 주축으로 치매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 2시간 수술로 보청기로도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린다

[ 건강정보 1 ]

###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팀, 인공와우 수술



직장인 김모 씨(29)는 어릴 때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점차 일상생활에서 답답함을 느꼈다. 옆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학교수업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친구관계도 소원

해졌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에는 보청기를 구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김 씨는 어른이 된 뒤 보청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잘 들리지 않았다. 5년 전부터 난청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국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팀을 찾았다. 귀에 위치한 와우(달팽이관)에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인공와우수술만으로 청력이 회복되지는 않았다. 귀에선 '찌지직' 하는 소음과 기계음이 자주 들렸다. 거북했다. 그는 임 교수에게 소리를 조율하는 '맵핑' 치료와 언어치료를 꾸준히 받았다. 그제야 청력의 70~80%를 회복할 수 있었다.

#### ○ 심한 난청환자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수술

인공와우수술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양쪽 귀가 모두 들리지 않는 심한 난청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달팽이관에 이식한 인공와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전기자극으로 바꾼다. 이 전기자극은 청신경을 자극해 대뇌 청각중추가 소리를 인지하게 만든다.

양쪽 귀가 심하게 손상 됐다면 인공와우수술을 받아야 한다. 2세 미만 영아는 양쪽 귀가 90데시벨(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각기능의 발달에 진전이 없을 때 받아야 한다. 2세 이상은 양쪽 귀가 70데시벨(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수술 고려 대상이다.

성인보다는 어린이에게 효과가 더 크다. 신생아 1000명 중 1, 2명은 양쪽 귀가 모두 들리지 않는 고도난청이다. 가벼운 난청 질환자까지 포함하면 난청환자는 더 많아진다. 어릴 때의 난청은 언어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일찍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지능발달, 친구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 ○ 재활치료가 더 중요

인공와우수술은 전신마취를 한 후 진행된다. 수술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다.

이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일반인처럼 바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수술이 기대한 것만큼 청력에 도움을 못 줄 수도 있다. 김 씨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이 수술한 후에 사람들 목소리가 로봇 기계음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또 너무 많은 소리가 동시에 들려서 오히려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수술을 받은 뒤 4~6주가 흘러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면 비로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리 조율을 시작한다. 외부 소리를 인공와우가 편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조율하며 1개월 정도가 걸린다.

인공와우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는 일반인이 듣는 소리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수술 이후 언어재활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치료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주 1, 2회 실시하며,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 갓난아이가 태어나 소리를 배우는 것처럼 음을 구별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새로운 소리에 적응하는 과정인 셈이다.

김 씨는 직접 피아노를 한 음씩 치면서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인공와우가 불편했다. 그러나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인공와우에 적응했고 안 들려서 불편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고 말했다. 이런 노력으로 김 씨는 새 삶을 얻었다.

#### ○ 정전기와 자기장은 주의해야

인공와우는 기본적으로 전기자극을 가하는 기계로 소리를 몸 안과 밖에 부착된 자석으로 전달한다. 정전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라스틱 원통의 놀이기구나 공항 검색대 등을 통과할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도 자기장을 이용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는 수술 부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 교수의 목소리는 일반인에 비해 3배 이상 크다. 진료실 밖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쩌렁쩌렁 울린다. 하루 100명에 가까운 환자에게 큰소리로 얘기하면 목이 아프다. 하지만 항상 난청환자들을 대하다 보니 또박또박 큰소리를 내서 말하는 게 습관이 됐다.

임 교수는 인공와우 전문의 중에서도 경력이 많고 수술성공률도 높다. 2년간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 와우에 관한 전기생리학적 기능을 연구하기도 했다. 임 교수를 포함한 고려대 안암병원은 소리조율 및 언어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팀워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다. 세간의 평판이 좋다. 📖

동아일보 10월 10일 게재, 글 | 이유종 기자

## “눈으로 말해요” 눈맞춤은 세계 공통어임을 다시 한 번 알게 된 소중한 경험 [ 친절칼럼 ]

능력있는 간호사,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간호사이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사한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 나는 바쁜 업무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사람과는 많이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미국인 환자를 맡게 되었다.

입원한 지 하루가 지났고, 여전히 호흡곤란이 있었던 그 환자는 언뜻 보기에 많이 불안해 보였다. "낮선 타국에서 숨쉬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오는 것도 많이 힘들었을텐데, 중환자실까지 왔으니 정말 불안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환자였고, 나 역시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미국 공통어인 바디랭귀지를 활용하여 몸짓, 손짓을 해가며 동시에 끊임없는 환자와의 눈맞춤으로 편안함을 주는 간호를 하려고 노력했다. 나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알아준 걸까? 환자는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환자는 등을 들썩거리며 침대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중환자실은 기본적으로 두 시간 마다 체위변경을 하고 목욕과 샴푸도 하지만, 침대위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많이 불편해하고 두 시간 마다의 체위변경에도 한계가 있음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바로 등 마사지와 이완요법을 시행했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한 결과 환자는 만족한 표정으로 "Thank you!" 라고 말하고 등이 빠근했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사실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자신의 마음을 읽어 줬다는 것에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낮선 타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많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알고 있는 영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환자는 봉사활동을 위해 한국에 영어강사로 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환자는 의료봉사가 꿈이었던 나에게 그동안 잊고 지내던 나의 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 고마운 존재가 되었다. 그 후 환자분은 일반병동으로 전실했고 잘 퇴원 하셨다고 들었다.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은 의료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업무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지쳐있던 나에게, 환자와 눈맞춤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알게 해준 고마운 환자였다. 더구나 퇴원시점에 영어가 능통한 친절간호사로 VOC가드까지 써주시기도 했다. 영어가 능통하다기 보다는 눈맞춤만큼은 확실히 잘했다는 생각과 역시 눈맞춤은 세계 공통어임을 다시 한 번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

글 | 내과중환자실 민나리 간호사



민나리 간호사

## 예방이 최선... 체중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 건강정보 2 ]

###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한승범 교수 : 관절염의 모든 것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관절염 발병률은 여자 22.7%, 남자 5.5%다. 특히 70대 여성은 무려 41.5%에 달했다. 두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관절염 환자인 셈이다. 사망에 이르는 큰 질환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통증으로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근육과 관절이 경직돼 관절염 증상은 더욱 악화된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한승범(사진) 교수에게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을 들었다.

#### ○ 관절염이란 어떤 질환인가.

“연골의 손상,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해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관절염은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을 뜻한다. 관절을 덮고 있는 초자연골이 닳아서 생긴다. 관절염 환자의 대부분은 골관절염이다. 골관절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류머티스관절염이다. 면역세포가 활액막(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주로 무릎·손목·손가락 관절이 침범된다. 골관절염은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발병하지만, 류머티스관절염은 10대, 20대도 겪을 수 있다. 통증도 골관절염보다 훨씬 심하고 고통스럽다.”

#### ○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예전에는 노화가 원인이라고 봤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령, 유전인자, 비만, 관절의 모양, 호르몬, 외상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관절의 과도한 사용도 관절염의 주된 원인이다. 육체노동자나 운동선수들이 관절염에 잘 걸린다. 또 젊었을 때 반월상연골판(무릎에 있는 반달 모양의 물렁뼈)이나 인대 등 관절 부위를 다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에 비해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 오(○)자로 된 다리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다. 류머티스관절염은 유전의 영향이 크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 ○ 관절염의 증상은.

“관절염의 대표 증상은 통증이다. 초기에는 해당 관절을 움직일 때만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다 점차 병이 진행되면 움직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 또 관절이 뻣뻣해져 운동 범위가 제한된다. 관절의 연골이 많이 닳게 되면 관절 운동 시 마찰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관절염이 생긴 부위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 무릎에 발생하면 관절 모양이 변형돼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 주로 안짱다리로 변한다. 손 관절염의 경우, 손가락 끝마디에 골극(가시

같은 모양으로 덧자라난 뼈)이 형성되기도 한다. 류머티스관절염의 증상은 손에서 많이 발견된다. 만지면 아프고 움직임이 제한되며, 손바닥에 홍반이 나타난다. 손목을 뒤로 굽히거나 손가락을 구부리기가 어렵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바로 움직이기 힘들다. 관절이 건강해야 노년이 행복하다는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 ○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이 발병한다는데.

“실제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대다수는 여자다.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 50대가 넘어서 폐경기가 오면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면 몸 안의 뼈(골 양)도 줄고 연골이 약해져 손상되기 쉽다. 무릎 관절염 환자의 70% 이상을 폐경기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집안일을 하면서 무릎 등의 관절을 자주 구부리는 것도 관절염의 발병률을 높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육이 적고 근력도 약하다. 이로 인해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가 높아져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 ○ 치료는 어떻게 하나.

“초기에는 자세교정, 식생활, 운동 등 생활습관을 바꾼다. 다음 단계로 약물치료를 한다. 약물치료는 관절염 치료의 근간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주로 사용한다. 관절주사요법도 있다. 염증이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관절에 주사해 통증을 억제한다. 그러나 효과가 일시적이고, 너무 자주 맞으면 관절이 파손될 수 있다.

약물치료로도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시행한다. 관절내시경술이 가장 간단하다. 관절 내 염증 물질을 세척하고, 닳아서 부서진 연골 부스러기(관절유리체)를 제거한다.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 통증이 적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관절 한 부분에만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절골술을 시행한다.

관절의 정렬을 바꾸는 수술이다. 체중이 가해지는 부위를 변경해 덜 상한 관절면을 쓰게 한다. 이로도 해결이 안 되면, 인공관절치환술을 고려해 봐야 한다. 단 인공관절의 수명에 제한이 있어 향후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

#### ○ 평소 생활 속에서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건강한 관절을 되찾기란 쉽지 않다. 애초에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관절염 예방의 첫째는 정상 체중 유지다. 고도비만자가 정상인에 비해 관절염에 걸릴 위험성이 4배 이상 높다. 체중부하가 클수록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운동이다. 적절한 운동은 뼈와 관절을 건강하게 한다. 의자에 앉은 채로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 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기 등의 동작을 평소 꾸준히 한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관절에 좋다. 단 등산이나 달리기, 점프류의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므로 적당히 하는 게 좋다.”

## "병원과 환자 안전은 보험과도 같습니다"

[ 미니 인터뷰 ]



“안전은 보험입니다.” 산을 좋아 하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40대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고려대학교병원 오창환 안전요원. 그는 군 제대 후 병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후 지금까지 병원 내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오 안전요원은 병원의 인적 물적 및 시설을 비롯해 안전사고와 방법 방화, 예방, 적절하고 빠른 조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근 고려대병원 내에서 스마트폰 분실 사건이 접수됐다. 도둑은 병실 내 환자와 보호자 관리가 허술한 것을 틈타 핸드폰을 훔쳐 달아난 것이다. 안전요원실과 총무팀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총 3명으로 압축해냈다. 추가 절도에 대비해 용의자 인상착의, 착용 의류 등을 숙지했다. 새벽근무 중이던 오 안전요원은 원내 한 화장실 앞에서 CCTV에 포착됐던 용의자 3명과 마주쳐 이중 2명을 실랑이 끝에 제압에 성공해 성북경찰서로 인계했다. 도주했던 나머지 1명은 경찰 수사로 붙잡혔다. 그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해 '용감한 녀석'으로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사람인데 안 무서울리가 있나요. 도둑들이 병원에 들어오면 적게는 2~3명, 많게 5~6명 정도가 다녀요. 순찰하는 도중에 도둑과 맞닥뜨리면 두렵죠. 그러나 잡아야 한다는 마음을 먹고 용기를 냈습니다.”

고려대병원은 중앙감시실과 3층 안전요원실 CCTV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병원은 24시간 개방 돼 있는 곳이에요. 특히 병실이 1인실이 아닌 경우 옆 보호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녁 늦은 시간 때에는 보호자가 없는 병실이 많기 때문에 병원이 범죄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근무하는 동안 겪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다. “술에 만취한 아가씨 한 분이 병원 현관에 주저 앉아서 평평 울고 계셨는데요. 저보고 오빠, 오빠 하는 거예요. 겨우 달래서 집에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오 안전요원은 병원과 환자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안전사고와 더불어 방법을 사전 예방하려면 방화 시설물 보강과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 “내원객과 환자분의 안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무자들도 다치지 않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자기자리를 지키고 계신 안전요원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내일을 생각하며 파이팅 하세요.”

e헬스통신 8월 10일 게재, 글 | 장우정 기자

